

사설

조계종학 정립방안 마련해야

조계종 불학연구소에서 '조계종학' 정립을 위한 설문 실시 중에 있다고 한다. 수행과 교학체계의 지점이 정립되지 않은 탓으로 어떻게 수행하며 대중을 교화해야할지 그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종단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사실 조계종단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이 단언할 수 없는 역사적, 교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통불교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더더욱 교단의 성격을 모호하게 할뿐 아니라, 제종융합의 성격 속에서 종법상의 종지종풍과 종단의 종교적 현실이 괴리감을 지니 채 유지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불학연구소의 주장은 매우 설득

력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수행과 교학체계 정립은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점이다. 몇 십 년, 아니 몇 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만큼 중차대하고 방대한 작업이다. 불학연구소가 설문조사 이후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진행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스님과 재가자들의 '자기 반성적 성찰'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간화선이나 소위 말하는 '제3수행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공정히 평가하고, 꼭 필요하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행환경권 인정한 법원결정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제4공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16일 내려졌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4민사부는 결정문에서 회룡사와 홍법사의 소유 및 점유 토지 부분의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른 지역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결정은 곧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의 재검토를 촉구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문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찰의 수행환경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회룡사 소유 토지의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하며, 회룡사가 민족문화 유산이자 역사적 의미를 가진 전통사찰로 많은 승려들이 동안거, 하안거 등의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찰산 터널 공사로 인하여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행환경을 침해하는 도로 건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사찰은 구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 현행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계획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해 많은 사찰이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는 사찰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해 대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수행은 불교의 근간이다. 법원이 이제나마 수행환경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기회에 사찰의 수행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불교계 관련 기관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갖지 않는 권리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위빠사나 行禪부터 해봅시다”

수덕사서 불교학 전공자·기독교인 등 150명 수행체험

불교학연구회 “명상과 불교수행” 주제 워크숍 참가자들 “실천불교학 모색 뜻깊은 자리”

“좌선을 하기 전에 위빠사나의 행선(行禪)을 먼저 해봅시다.”

13일 충남 예산의 덕숭총림 수덕사 황하정루 2층. 불교학 전공 석사·대학원생, 원불교 정녀, 개신교인 등 150여명(불교학전공자는 110명)이 보리수선원 원장 부다락터 스님의 고요한 음성 아래 한 발 한 발 걸으며,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좇아 이리저리 따라가는 생각들을 알아채고 있었다.

불교 학자라면 당연히 수행의 전문가여야 하겠지만, 우리 불교학계의 현실은 이론과 실수(實修)

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가지런하지 못한 실정. 그래서 이날의 수행법 체험은 자칫 관념속에 머물러 있어 체험을 간파하기 쉬운 불교학자들의 심성에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인연을 뿌려주었다.

13-14일 1박2일간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스님)가 '명상과 불교수행'을 주제로 마련한 2002년 여름워크숍에서는 위빠사나와 함께 염불선과 간화선 실수를 귀신사주 용타스님과 수덕사선원 입승무애스님의 지도하에 실시했다.

20여년간 동사섭법회(同事攝法)

會)를 지도하며 염불선의 대중화에 앞장선 용타스님은 “나”라는 이미지를 지우면서 현전하는 ‘명법’을 관조하고 ‘아미타불’하고 염(念)하는 것이 염불선 공부의 한 요령”이라며, 금타-청화스님(성륜사 주시)으로 이어온 한국 염불선 수행의 특성의 하나로, 금타스님의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에 따른 염불선 수행법을 소개했다.

이튿날 아침 공양후 열린 좌선실수는 무애스님의 활발한 목소리만큼이나 신선하게 진행됐다. 참선의 자세를 간단하게 지도한 후, 무애스님은 “옛 1700 공안에 송장,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일갈하고, “죽은 공안 즉, 사구(死



△불교학연구회 회원들과 재가자들이 13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부다락터 스님의 지도하에 위빠사나의 행선을 체험하고 있다.

會)에 매달리지 말고 생활 속에서 생명력있는 활구(活句) 참선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명예이사와의 만남 시간에서도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과 감로사 회주 혜총스님, 봉선사 주지 일민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도 한결같이 “실참실수가 바탕이 된 살아있는 불교학 발전에 매진

한·중국 불교교류 활성화

중국 종교국 고위간부·불교협회

조계종 초청... 잇달아 방한 우의다져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 종교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정부 종교국 고위직자들이 9월 2일 조계종 총무원의 초청

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또 조계종 초청으로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부회장, 장립 부비서실장 겸 국제부 주임, 보정 국제부 한국담당 스님

을 비롯 8개성 불교협회 회장과 서기장, 중국 종교국 담당자 등 17명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수석부회장의 인솔로 방문기간 동안 총무원장 정대스님 예방, 직지사, 해인사, 불국사(석굴암), 신흥사, 낙산사 등을 방문하여 승가교 육시설 등 한국불교의 현황을 둘러보고 각 사찰주지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개달음에 지름길은 없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청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7월 26일부터 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등록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또 조계종 11교구 불국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태는)는 8월 16일 제12대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를 개최한다. 불국사 총회의원 입후보자 등록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이다. 김원우 기자

영산재·단청장 등 중요무형문화재 대학수료 인정 전통예술학사 학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영산재, 단청장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대학 교육을 마친 것으로 인정돼 내년 2월부터 별도의 학점 취득 절차 없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전통예술을 전통음악·무용·무예 연희 공예·조리·주조 등 7개 분야 119개 전공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누구나 전통예술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올 10월 학위를 신청한 후 임정된 심사 절차를 거치면 내년 2월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222명 중 4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또 도제식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전수받고 있는 고졸이상의 문화생들도 내년 3월부터 기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 요건 충족시 전통예술학사(140학점)나 전통예술전문학사(80학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권진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간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필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쇄인 : 김규석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윤정주씨의 놀라운 체험이야기

우리의 육체에서 만드는 氣(마음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밝힌 책

# 모습 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자 : 尹丁倣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마음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 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냈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마음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상, 下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마음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림 ■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